

■■■ 추억의 합격기

[제33회 사시·제36회 행시 재경직·제27회 외시 합격]

얼떨결에 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이야기



송옥열

『학력사항』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졸업(1992년)
- 대입학력고사 인문계 수석(1988년)
- 경북고등학교 수석졸업

『경력사항』

- 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학)
- 김앤장 변호사
- 1991년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2년도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1993년도 제27회 외무고시 합격

The world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자신만이 꿈꾸는 삶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리라.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방황하고, 좌절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그 많은 사연 위에 여기 한 편의 이야기가 덧붙여 지려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과거는 분홍빛으로 보게 되는 법이지만, 그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볼 수 있게 해 주리라 믿으면서, 이제 나만이 간직해 왔던 이야기 몇 가지를 적어 보기로 하겠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 누군가 말했듯이 잘 훈련된 공부선수라고나 할까? 내가 공부를 좋아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해왔다. 고입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았고, 경북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그 해 학력고사에서 인문계 공동수석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3학년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해에는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바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행정고시(재경직)와 외무고시에 차례로 합격하였다. 지금까지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최소한 공부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고 살아 온 셈이다.

사람들은 나의 이렇게 화려한(?) 경력에 놀라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데없이 고시를 3개씩이나 보았느냐고 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처음 법대에 들어올 때는 내가 고시를 그것도 3개씩이나 보게 될 줄은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다. 고시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길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정말 이 모든 결과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었을까?

나는 어렸을 적부터 미술 시간을 좋아했고, 또 그림을 꽤 잘 그렸다. 하지만 나는 미술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개가 색맹(정확히는 적록색약)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신체적 조건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고, 나는 내 적성이 이과 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과를 선택해야 했다. 나는 수학이나 물리를 아주 잘했었고, 또 별을 좋아했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다. 아마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리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길을 선택할 자신이 없었다. 내 신체적 조건이 어떻게 작용할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 그것은 마치 떠나가 버린 첫사랑에의 아쉬움과도 같은 것이어서, 평생을 두고 되씹기 마련이다. 내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는 아직

도 수학이나 물리 같은 학문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가끔씩 되돌아보곤 한다.

내가 법대에 들어오게 된 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내 적성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단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였다. 그리고 억지로 다른 이유를 들자면, 문과에서는 마땅히 끌리는 학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제학과에 가면 어떻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이는 이과 학문에 대한 향수에 불과할 뿐, 서울 법대라는 유희를 떨쳐버릴 정도로까지 되지는 않았다. 그 당시까지도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 보다. 단지 막연히 교수가 되면 그럴 듯 해 보이지 않을까 하고 가끔 생각하는 정도였다. 어쨌든 나는 아무런 꿈도 없이 법대 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1학년 때, 그러니까 '88년도 봄에는 수업 거부도 몇 번 있었고, 아이들도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즐겨 했던 것 같다. 친구들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고, 그 속에서 나는, 내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갈등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뭔가 그럴듯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결국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맞는 1학기를 나는 정말 조용히, 아무런 활동 없이, 그렇게 보내야만 했다.

내가 내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그 해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책방에 가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어떤 文句 하나를 발견했는데, 나는 그 때서야 어떤 직업을 가진다

는 것은 인생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글썄, 어쨌든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하고 싶은 직업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 때의 행운에 감사한다. 그 몇 마디의 구절이 내 대학생활 전부를 지배했고, 그 몇 마디가 그 이후의 내 생활 전부를 설명할 수 있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흐르는 법. 생각하기에, 나를 지탱해주었던 그 몇 마디 덕분에, 나는 그 이후 그 어떤 강물에도 휩쓸리지 않고 내 갈 길을 잘 거슬러 온 것 같다. 얼마동안 방황한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2학기부터 다음해 2학기까지, 그니까 약 1년 반 동안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이었다. 서클에서도 나왔고, (용돈을 아껴 레코드판을 사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점심도 거를 때가 많았으며, 나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보냈다.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한 거의 모든 학문을 상당 부분 공부할 수 있었다. 수학·물리학·화학·경제학·현대철학·언어학·영문학·정치학 등등. 단순히 교양을 쌓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2,3학년 과목을 청강하면서 필요한 기본 지식은 도서관에서 찾아서 공부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의를 듣기란(특히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잘 모르더라도 열심히 필기하려 했고, 나중에 책을 찾아 확인하곤 했다. 그런 모든 공부가 전혀 지겹지가 않고 오히려 무척이나 즐거웠다. 앞서 간 사람들과 책을 통해 만난다는 것이, 그 당시만큼 나에게 기쁨을 준 적도 아마 없을 것이다. 물론 그 모두를 다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때 공부한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다만 몇 권의 빛바랜 노트

만 남아 있을 뿐이지만, 그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우리 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知的인 세계를 담백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는 분명한 행운이었다. 지금도 그 때의 정열을 생각하면 웬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지곤 한다.

이 기간 동안 법대에는 정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전공필수 과목 몇 개를, 그것도 대부분 건성건성이었다.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정도였다고나 할까? 내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에는 전공과목을 66학점인가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수 이수학점이 63학점이니, 꼭 졸업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한 셈이다. 또 그 상당부분은 법정제학, 영미법, 로마법, 법제사, 법철학 같이 쓸데없는(?) 과목으로 채워져 있다. 이쯤 되면 내가 얼마나 자신의 본업에 소홀했었는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으리라. (아직도 나는 법학만큼은 자신이 없는데, 아는 것도 별로 없을뿐더러,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다.)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이유 없는 반항심도 아마 한몫 거들었을 것이다. 모범생이라는 너울을 벗어버리고 싶었다고나 할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즐거운 일을 했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적 같은 것에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쉬웠던 것은 그 넓은 서울대를 나 혼자서 이리저리 싸돌아 다녀야 했다는 것이다. 도서관에 가면 과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함께 공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외로울 때가 많았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헤세가 그랬던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지혜도 능력

도 없다고, 그 말이 별로 가슴에 와 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2학년 2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가, 나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그 때 처음 사법시험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2학년 때 친구들이 1차 시험을 본다 하길래, 민법, 형법 기출문제집과 국제사법 문제집만 보고서 시험장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나는 당시 다른 공부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별 느낌이 없었다. 하지만 2학년 말이 되면서 나는 이제 사법시험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는데, 글썽 그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막연한 의무감이었을까?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고시에 합격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나는 특별히 무엇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법시험을 본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나는 사법시험이 내 공부에는 장애물이라는 해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만약 계속 시험에 떨어졌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계속 시험공부를 하고 있을까? 모를 일이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10월말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곽윤직 민법총칙부터 시작해서 정동윤 민사소송법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차근차근 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때까지도 김주수 민법개론과 정영석 형법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객관식 문제집과 주관식 문제집도 같이 구입했다. 그리고는 이 책들 중에 그날그날 마음이 내키는 책을 골라, 마음이 내키는 부분부터 도서관에서 읽

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다음 해 사법시험 2차를 치를 때까지 다른 공부는 일단 중지하고, 오로지 내 전공 공부에만 몰두했다. (3학년 1학기에는 법대 과목 이외에 다른 강의는 전혀 듣지 않았을 정도로)

나는 3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이른바 동시합격이라는 것이지만, 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였다. 그 때까지의 내 행동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차 시험장에서 한번 끝까지 치러 본다는 생각으로 답안을 작성한 것이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줄 줄이야.

그 해 2차 시험은 국민대에서 있었는데, 그곳은 내가 방학동안 공부하던 곳이었고, 또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1차 합격 발표 후 일주일인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나는 예상문제라도 몇 개 짚어서 공부해 보려고 했지만,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공부가 될 턱이 없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 분위기나 알아보려고 했다. 첫날 들어가 보니, 시험장 분위기는 예상대로였다.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 마지막까지 필사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내가 내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시험시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국민윤리조차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후의 법과목들은 정말 나의 무식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어렵뜻하게나마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가족법 부분의 판례 하나가 전부였고, ‘형성판결의 기판력’이라는 문제는 무얼 쓰라는 것인지 암담했다. 형사소송법 문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구속집행 정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행정소송의 한계’를 쓰라고 하는 데 아는 것은 사법권의 한계뿐이었다. 내가 제대

로 알고 쓴 과목은 형법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L 세 문제 중 두 문제 정도는 법전을 베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에 비록 잘 모르더라도 마음이 가벼울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은 잘 쓰려고 노력했다. 내 나름대로 학설을 너무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정말 너무나 독창적(?)인 답안만 4일 내내 작성하였다.

시험이 끝난 후, 스터디 그룹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2차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우선, 책을 보면서 노트에 그 목차를 정리하기로 했다. 과거 10년간 시험에 나온 것은 될 수 있으면 제외하고 각 과목당 100여개 정도의 문항을 만들어, 그 아래에 보기 좋게 목차를 적어 놓았는데, 나중에 계속 책을 읽어가면서 그 옆에 중요한 내용을 적어두기 위함이었다. 2개월 정도 지났을까, 목차가 거의 완성되었을 무렵,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친구들이 나의 합격 소식을 전해 주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비록 목차를 만드느라고 수고한 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해도, 합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성적은 거의 최하위권이었지만, 그리고 성실한 노력이 수반되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합격이었다. 어차피 관·검사가 될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빨리 끝냈다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 후의 1년 반 동안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제학과 대학원 진학에도 실패했는

데,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이 기간 동안 전혀 내 마음을 잡지 못했다. 잘만 했으면, 예전처럼 내가 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긴 세월이었고,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었다. 내가 그 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무얼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 글에 적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혼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내 말 못할 고민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고민해 주었던 재일이에게 지금도 나는 감사한다.

돌이켜 보건대, 내 대학 생활의 절반은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처절하게 살았고, 그 이후의 절반은 정처 없이 방황하며 보냈다. 지내 놓고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둘 모두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모두가 내 삶의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더불어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덤 역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행운이었다.

사법연수원에서 나는 5반 C조 총무를 맡게 되었다. 관례적으로 그 조에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총무가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를 이미 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수원 생활보다는 고시 준비가 더 중요했지만, 총무라는 책임 때문에 고시 준비에만 열중할 수가 없었다. 또 연수원 생활은 매우 빠빠해서, 원수원에 최소한 매일매일 출근해야 했고, 수업도 꼬박꼬박 들어야 했다. 또 웬 모임은 그렇게 많은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3, 4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연수원 생활은 꽤 재미있었고, 배우는 것도 많아서, 연수원 과정을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체력이 강한 편이 아니었고, 잠도 많은 편이었으며, 상황이

또 이러하였기에 처음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다.

5월이 되자 연수원 생활도 많이 익숙해졌고, 모임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연수원 수업 이외의 시간을 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때로는 연수원 도서관에서 때로는 국민대 도서관에서 이제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었지만, 행정고시까지는 3개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 4시나 5시까지 연수원 강의를 들어야 했다. 너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굳이 합격하려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다. 그 당시의 솔직한 심정은 그냥 예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물론 합격하면 좋은 일이지만, 떨어지더라도 다시 같은 공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다. 도서관 안이건 밖이건 한여름의 열기가 가득했고, 나는 조금씩 지쳐갔다.

그해 92년도 8월에 치렀던 행정고시는 내가 제대로 준비한 시험 중에서 가장 못 본 시험이었다. 전혀 예상 밖으로 출제되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문제지가 펼쳐지는 매순간 한숨으로 일관했던, 그런 시험이었다. 행정법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3일째 되던 날, 재정학과 통계학 문제를 보고 나는 정말 이번 시험을 포기하고 싶었다. (통계학은 내가 가장 잘 했고, 많이 준비한 과목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성적은 40.66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국제경제학 시험은 황설수설로 일관했던 것 같다. 문제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만 시험이 나와 가지고는…….

시험은 끝났지만 허망해 할 겨를이 없었다. 연수원 중간 평가가 10월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시 준비한다고 연수원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사실 대학에서 법률을 그렇게 많이 공부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모두 새로운 것이었고, 또 이상하게도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공부가 시험과 관련 되면 좋았던 것도 지겹게 느껴지는 법. 솔직히 말하면, 책을 보면서도 정신을 잘 집중하지는 못했다.

연수원 시험이 끝나자 때맞추어서 행정고시 2차 발표가 있었는데, 뜻밖에도 합격이었다. 운이 좋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연수원 성적도 우려했던 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덕분에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수고했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이제하나 남은 외무고시 2차 시험까지는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영어와 불어,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을 이 기간 동안에 공부해야 했다. 이번에는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고시를 붙었으니 최소한 할 것은 해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비울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외국어2개를 공부하는 셈치고 시험 준비를 했다. 당시에는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었지만,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그렇게 많

지 않았다. 내가 너무 바둑을 많이 두어서 오히려 선배 형들이 공부하라고 걱정해 줄 정도였으니까. 결국 외국어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했다.

93년 2월. 나는 정말 내가 아는 것만 적당히 쓰고 나온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다. 며칠 동안의 시험이 지겹기는 했지만, 붙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경제학이 어려웠지만 아는 만큼만 썼다. 붙어는 생각보다는 쉬운 편이었지만, 그래도 나에게서는 무척 어려웠다. 어쨌든 시험은 끝났고, 얼마 후에 나온 결과는 또(?) 합격이었다.

내가 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나서, 고시계사로부터 합격기를 의뢰받았을 때 나는 정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알았겠지만, 내 생활이 합격기라는 종류의 글을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열심히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의 연속인 내 생활이 기분 좋게 비칠 리가 없으며, 또 사실 나도 고시에 관하여는 별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냥 공부방법이나 적어보려고 했지만 그런 글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싶었고, 나를 두고 떠도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이 글에 쓰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보게 된 사연과 같은 것들- 그건 언제까지나 나만의 추억으로 간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돌아켜보면, 나는 내가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고시를 위해 매달렸던 기간을 모두 합쳐도 2년

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운이 좋았다. 고시 때문에 희생한 것도 거의 없었다. 우리네 삶은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고들 하는데, 나는 고시를 보면서도 내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린 셈이다. 아니, 오히려 고시를 공부하면서 주요한 학문의 기초적인 내용에 관하여 나름대로 철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니, 나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때로는, 내가 과연 그 큰 행운을 받을 만큼 노력을 했었는가 의구심이 들기도할 정도로 나에게서는 과분한 것이 많이 주어졌다. 글썄... 운이 좋다는 표현 이외에 그 동안의 내 생활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

이제 이 글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순간순간의 조그만 추억들을 적지 못한 것이 아쉽다. 몇마디, 나름대로의 공부방법이라든가 고시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 같은 것을 적어볼까도 했지만,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글의 성격상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를 지켜봐주는 몇몇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모교의 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어떤 이유로든 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만 줄일까 한다.

문득, 언젠가 읽은 프로스트의 詩句가 생각난다.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여기 눈 덮인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서
물끄러미 보고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내 작은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근처에 농가도 없는 숲에 이렇게 서서
나무와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서 있음을,
그것도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이 저녁에.

내 작은 말은 방울을 흔들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밖에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희미한 바람소리와 살포시 내리는 눈송이
뿐.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그리고 아늑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자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습니다.

아마 나에게도 앞으로 가야 할 먼 길이 있으리라. 그리고 때로는 눈 덮인 숲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숲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소중히 간직해 왔던 꿈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리라. 이제 그 동안의 방황을 정리하고, 그 옛날 나를 들뜨게 했던 그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수확이 될 것이다.

(친구가 충고해 주기를, 공부하는 방법을 적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공부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을 몇 자 사족으로 달기로 했다.)

고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첫째, 고시에서는 사후적인 결과에 의해 모든 것을 평가받는

다는 것이고, 따라서 만일 불합격이라는 쓴 잔을 마시는 경우에는 그 중간과정에서 자신이 투입했던 노력을 보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고시는 상대평가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 되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시를 준비하면서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세부적인 것은 시험장에 가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고시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약간 예외이지만.) 셋째,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많이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시험지 작성요령이니, 목차 암기니 하는 것들은 지극히 부차적인 것들이다. 일단은 집중해서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좋다. 필독서만 읽고, 그 책만 잘 암기해서 시험에 합격하려는 것은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이 나라를 실제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독서량이 겨우 몇 권의 수험서에 불과하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먼저 책을 구입해야 한다. 책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회에 속하는 일이지만,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텍스트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이러한 책을 선택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 책들은 고시 잡지 최근호를 조금만 뒤져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법전을 준비해야 한다. 고시용 법전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시험장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1차 과목의 경우에는 구입한 교과서를 잘 읽고, 객관식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행운이 따르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1차 시험에서는 운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의 사용 여부가 당락을 결정한다. 흔히 학설의 이해에 지쳐서 법조문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의지할 것이 법전 밖에는 없는데다가 법해석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근거는 역시 법조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법전을 아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답안에도 구체적인 법조문을 가능하면 많이 인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공부할 때 항상 법전을 옆에 두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한다. 또 책 몇 페이지를 읽은 후에 법전만을 보고 요건과 효과, 그 밖에 지적해야 할 사항을 잠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을 무작정 읽으면서 책의 목차를 따라 암기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너무 많은 노력이 소모되기에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다. 법조문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면서 서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최대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고시〉 중 재경직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혼자서 책을 열심히 읽어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만, 경제학을 나름대로 서술하기 위해서

는 학교 강의를 충실히 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관하여 논하라’는 식의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교과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부분을 그대로 재현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학의 경우에는 ‘공급경제학의 대두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식의 문제는 아주 가끔 밖에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충실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국제경제학의 4과목을 별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었다. 최소한 기본적인 그래프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만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고시 1차 시험은 공부하기 가장 수월한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영어와 국사만 잘 극복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오히려 행정고시, 특히 재경직의 경우에는 2차 시험의 부담이 매우 크고, 따라서 시험을 처음 준비하면서 우선 1차를 합격한 후 1년 공부해서 2차에 합격하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 같다. 1차 시험에 합격할 때쯤 해서 행정법과 경제학(연관과목포함)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차 시험 3개월 전까지는 1차 과목과 행정법, 경제학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외우려는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유용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그 문제들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문제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할 것이다.

〈외무고시〉는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교과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이다. 특히 1차 시험에서 영어를 보고 2차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 2개의 외국어에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다. 외무고시를 보려는 사람은 우선 시험과는 관계없이 외국어 2개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익혀 놓을 필요가 있다. 외국어를 익히는 방법은... 글썄,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게다가 외국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지름길이 있을 수 없다. 참고서 구해서 보고, 단어 외우고, 많이 읽어 보고하는 수밖에. 한 가지, 코리아 헤럴드 사설을 해석해서 써 본 후에 그 해석을 보고 다시 영어 원문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작문 연습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들 하는데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흔히 국제정치학이 가장 난해하다고들 하는데, 국제정치학이 마땅한 교과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별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수준 높은 국민윤리라고 생각하면 정확하다.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한 후에는 시험장에서 문제에 따라 적당히 얹어대는 수밖에 없는 과목이다. 외국

어가 어느 정도 된 경우에 가장 신경써야하는 것은 경제학과 국제법이다. 이 두 과목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내 경우에는 경제학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수월했다고 할 수 있지만, 외무고시를 보는 사람들은 학교나 학원 강의를 듣거나 해서 경제학에 대한 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역시 정해져 있는 교과서들이 많은데, 고시잡지에서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과는 달리 교과서를 그대로 쓴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시사 문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시는 생각보다 상당히 학문적인 자질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책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설사 통계수치를 모르더라도 그것이 합격과 불합격을 갈라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너무 많은 것을 간단히 적으려다 보니 적지 않느니만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고시에 대하여 약간의 안내를 할 수 있었다면 글을 쓴 사람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